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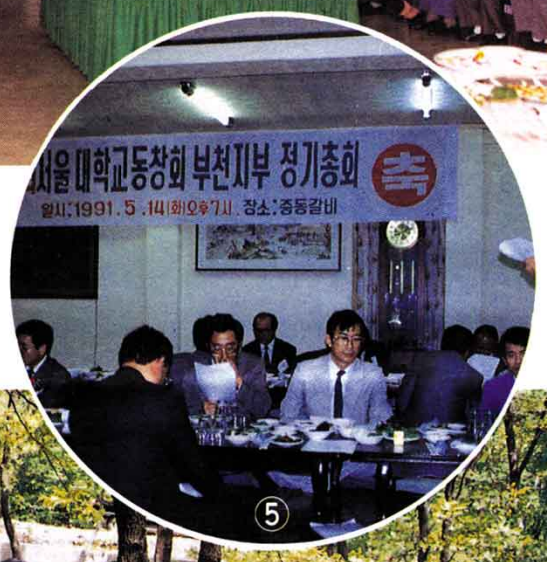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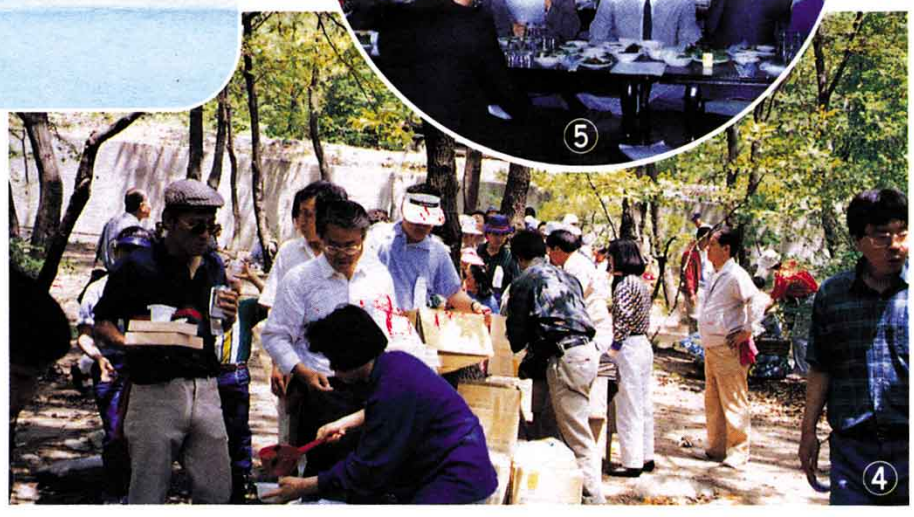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上向의 意氣 오늘도 뜨겁다



世界의 大學, 세계의 同窓會 국제수준의 大學으로 웅비하고 있는 母校의 위상에 걸맞게 동창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사진 ①師大 ②齒大 ③經營大學院 총회 ④工大 등산대회 ⑤富川支部 총회



冠岳春秋

6월의 想念

육월ㅅ 보로매
아으 별해 ㅂ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高麗歌謠 月令體(달거리 노래) 動動의 六月令의 本辭다.

음력 6월 보름을 流頭라 하여 東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혹은 폭포 밑에서 물맞이를 함으로써 병이며 災厄이 사라지게 하는 풍속이 있다. 참외와 수박을 물에 띄워 놓고 밀전병을 부쳐 막걸리를 마시면서 하루를 즐겼으니 이것을 流頭飮이라 하고, 물맞이를 打頭會라고 했다.

動動의 노래 13聯에는 님을 우러러 그리워하며 別離의 情恨이 마디마디 切切하게 읊어졌다. 이 노래는 자기 신세가 마치 六月 보름에 머리를 감아 빗고 액막이로 물가에 버린 빗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평소에는 그다지도 몸 가까이 지니고 愛之重之하던 빗이지만 流頭인 오늘은 머리를 감은 뒤 마지막 빗질을 하고 스스럼없이 버려져 버린 신세, 그러기에 나를 돌아보시는 그 짤막한 동안이라도 좇아 따르고 싶다는 時限的 哀願이 곁들여 있다. 因緣은 무수한 瞬間의 끈끈한 이어짐이라 한다면 주어진 극히 짧은 機會라도 順理로 받아들여 한껏 정성을 기울이고자 하는 切迫하면서도 熱情的인 옛사람들의 마음씨가 우리 血管 속에도 맥맥히 흐르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진 숨가쁜 現代的 상황 속에서라도 잠시 생각을 우리의 옛 노래에 잠가 봄은 순간이나마 傳統에의 回歸가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힘을 充塡하여 한층 활발히 跳躍할 수 있는 觸媒이기를 기대함에서이다.

五月이 新綠의 계절, 젊음의 달이라면 六月은 모란이며, 芍藥, 장미꽃이 華奢한 競艶을 하는 철이며, 연못 위에 깔려 떠 있는 잎 위에 睡蓮이 淸楚한 새색시처럼 연분홍으로 조신하게 피는 달이다. 하늘에 묵기 머금은 구름이 무시로 水彩畫를 그리고, 綠陰은 갈수록 농도를 더해 가 검푸른 빛을 띠는 靑壯의 계절이다.

자연의 질서는 불필요한 것은 스스로 陶汰가 되어 지저분함이 없이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사람의 발길 닿는 곳이면, 파괴와 오염과 무질서가 恣行되니 萬物의 靈長이란 自負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특히 學問과 人格陶冶의 象牙塔이라는 學園에 그 본래의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가지각색 부착물의 범람으로 環境을 어지럽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大學이란 곳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어늘, 승인된 일정한 공간 외에 아무데나 난잡하게 게시물을 붙이는 것은 질서가 잡힌 學園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學校 당국도 學習에 방해되는 騷音이나 環境의 亂脈相은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思慮 깊고 格 높은 勉學雰圍氣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入學式에서 學則을 遵守하기로 분명히 誓約하고 들어온 學生들이 學則의 違背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것은 그 原因이 과거 잘못된 학원 정책에 胚胎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제대로 잡아가겠다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현 단계에서 後輩들이 과거의 混亂相을 墨守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行動이다.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늘어지지 말고 냉철한 理性을 되찾아 모든 일을 對立보다는 協調 체제로 과감히 意識을 전환시킬 때 불필요한 時間과 노력의 허비가 줄어들고 建設의 방향이 잡힐 것이다.

오월 달에는 많은 單大 同窓會 총회가 열렸고, 이번 여름에는 美洲支部의 결성과 유럽 지부의 出帆 행사에 母校 趙完圭 총장이 직접 참석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달에는 同窓會도 母校도 더욱 활성화되는 달이 되기를 기원한다.

和合·結束의 잔치마당

單大·地方지부 總會 잇따라

奬學基金조성 名簿발간등 事業의욕 넘쳐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單大 동창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12일 열린 工大同窓會의 총회를 필두로 24일에는 法大와 齒大가, 25일에는 師大, 그리고 27일에는 經營大學院 총회가 잇따랐다. 또 地域支部로서는 富川지부가 14일 정총을 갖고 本會에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

▲工科大學同窓會(회장 崔鍾莞)는 지난 5월12일 모교 工大교수회의실에서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모교 연구시설 견학을 겸해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崔회장은 『동문들이 더욱 일치단결하여 모교의 명예와 상호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8월과 올초 정년퇴임한 安守漢교수등 7명의 工大퇴임교수들에 대한 기념품증정에 이어 전년도 결산보고 9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회원명부발간, 동창회보를 년4회로 증간, 각학과동창회와의 결속강화 그리고 모교지원사업의 확충등으로 합것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를 마친 工大동문들은 관악산 수목원에서 동행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法大同窓會는 지난 6월24일 오후 6시30분 프라자호텔 연수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琴麗鎬(58년卒·한국무역협회고문)동문을 선출했다.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會長人事및 신임회원 환영사, 신임회원대표 답사, 모교 학장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또 90년도의 결산과 91년도의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은 전년보다 약 2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3백여만원으로 짜여졌는데, 낙산회보및 지부회원명부 발간, 법대백년사발간, 모교지원등의 사업이 수립되어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영전동문에 취임축하패와 우수지부 간사에 감사패를 특별장학기금 출연자에게는 장학패를 각각 증정했다.

▲師大同窓會(회장 權相澈)는 지난 5월2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9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동문들의 정성어린 참여와 협조로 동창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이러한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회원명부발간·업부전산화·동창회수양관조성등의 목표를 설정,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祝辭에 나선 李應百상임고문은 『회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뭉쳐 발전해가는 동창회를 보는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동문들의 정성어린 참여와 협조로 동창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이러한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회원명부발간·업부전산화·동창회수양관조성등의 목표를 설정,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祝辭에 나선 李應百상임고문은 『회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뭉쳐 발전해가는 동창회를 보

새 總理에 鄭元植동문

법무 金淇春 동자 陳 稔

企劃院차관 姜賢旭 動資部차관 金時衡

◆鄭 총리

◇陳 동자장관

◇金 법무장관

정부는 지난달 24일 盧在鳳국무총리의 사표를수리하고, 후임 총리서리에 鄭元植 前문교부장관을임명했다. 鄭총리서리는 54년 모교師大를 졸업한후 62년부터 모교 교수로봉직해 왔으며, 79년부터 83년까지 師大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단행된 내각개편에서 財務法務 動資 保社장관을새로 임명 했다. 이번 改閣으로 법무부장관에 金淇春(62년 法大卒·前검찰총장) 동문이, 동자부장관에 陳稔(63년 商大卒·前기획원차관)동문이 각각 기용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26개 部處의 장관 중 서울大 동문이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鄭총리서리의 임명배경에 대해 『원만한 인품과 강력한업무추진력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높이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5·27改閣에 따른 次官급 후속인사에서는 경제기획원차관에 姜賢旭(61년 文理大卒·前동자부차관) 동문이, 동자부차관에 金時衡(62년法大卒·前상공부2차관보) 동문이 각각 기용됐다.

◈鄭총리 약력

▲황해도 載寧출신·63세 ▲모교 師大卒 ▲美조지피바디大 哲博 ▲모교 師大교수·학장 ▲한국교육학회장 ▲문교부장관.

朴允洙준비위원장 本會 방문

「在美總同窓會」결성 논의

崔회장 기금등 萬3千弗 出捐 약속

「在美서울大學校總同窓會」결성 준비위원장인 朴允洙(52년 文理大卒·워싱턴支部회장) 동문이 대한민국 崔主鎬회장과 在美총동창회 결성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本·支部간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李聖秀상임부회장, 吳寅泳사무처장이 배석한 이날 모임에서 朴允洙결성준비위원장은 在美총동창회의 창립총회 개최일자가 오는 6월1일로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위 본부 동창회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朴준비위원장은 이어 在美총동창회가 결성되고나면 우선 기금모금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로 「冠岳財團」(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崔회장은 이자리에서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위해 앞으로 在美 동문들의 활약에 큰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면서 冠岳財團 기금으로 1만달러와 在美총동창회 창립준비금으로 3천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朴준비위원장은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고국에 머물며 母校와 浦項工大, 西江大, 三星電子, 現代電子등을 둘러보았고 대한민국법학회 총회에서는 「반도체를 이용한 光전자소자에 대한 첨단장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했다.〈在美총동창회 창립 詳報는 다음號에〉

5월學生祝祭에 1백만원 支援

同窓會는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개최된 母校「5월大同祭」에 1백만원을 지원했다.

해마다 5월에 개최되는 대동제는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만5천여 재학생들이 벌이는 축제이다.

3백50弗 보내와 濠洲 멜번支部서

▲동창회濠洲멜번支部(지부장 禹載善·57년 師大卒)는 지난 5월17일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美貨3백50불을 출연했다.

母校齒大 제1세미나실에서 91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李회장과 金明國前학장, 李勝雨신임학장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李회장은 『2억원발전기금중 1억5천만원이 달성되었으며, 동문들의 母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90년도 결산과 91년도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임원개선에서는 李회장을 재선임했다. 그리고 회칙의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던 것을 특별회원을 추가해 他대학 學部를 나와 母校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동문들도 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2명에서 5명으로, 부회장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經營大學院동창회(회장 李孝益)는 지난 5월27일 市內 퍼시픽호텔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梁承現간사장의 사회로 오후7시 개최된 이날 총회는 會長人事에 이어 大學院 경영학과 자치회장 백도종군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 高麗大에서 經營學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光潤(78년卒·안주대 교수) 동문에 대한 기념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지난 한해동안의 동창회 경과보고와 90년도 決算에 대한 감사보고를 듣고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어있은 임원선임에서는 李孝益회장을 재선임하고 부회장은 본인이 사의를 밝힌 金英澈동문의 후임으로 李逸均(71년卒·明知大 교수)동문을 보선하고 나머지 임원진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끝내고 91년도 豫算심의에 들어가 장학금지급, 명부발간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3천1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環境大學院동창회(회장 金秉麟)는 지난 5월29일 오후7시 서울大호암교수회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의 동창회 활동과 9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에 이어 91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각 지역지부 동창회 활동지원및 미 결성지역에 대한 지원을 펴기로 했다.

▲동창회富川支部(회장 金洛律)는 5월14일 부천중동초등갈비에서 91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金회장과 임원진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반도체를 이용한 光전자소자에 대한 첨단장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8월과 올초 정년퇴임한 安守漢교수등 7명의 工大퇴임교수들에 대한 기념품증정에 이어 전년도 결산보고 9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회원명부발간, 동창회보를 년4회로 증간, 각학과동창회와의 결속강화 그리고 모교지원사업의 확충등으로 합것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를 마친 工大동문들은 관악산 수목원에서 동행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法大同窓會는 지난 6월24일 오후 6시30분 프라자호텔 연수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琴麗鎬(58년卒·한국무역협회고문)동문을 선출했다.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會長人事및 신임회원 환영사, 신임회원대표 답사, 모교 학장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또 90년도의 결산과 91년도의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원

▲歯大同窓會(회장 李春根)는 5월24일 7시

▲師大同窓會(회장 李春根)는 5월24일 7시

▲環境大學院동창회(회장 金秉麟)는 지난 5월29일 오후7시 서울大호암교수회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의 동창회 활동과 9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에 이어 91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각 지역지부 동창회 활동지원및 미 결성지역에 대한 지원을 펴기로 했다.

▲동창회富川支部(회장 金洛律)는 5월14일 부천중동초등갈비에서 91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金회장과 임원진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반도체를 이용한 光전자소자에 대한 첨단장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8월과 올초 정년퇴임한 安守漢교수등 7명의 工大퇴임교수들에 대한 기념품증정에 이어 전년도 결산보고 9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회원명부발간, 동창회보를 년4회로 증간, 각학과동창회와의 결속강화 그리고 모교지원사업의 확충등으로 합것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를 마친 工大동문들은 관악산 수목원에서 동행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法大同窓會는 지난 6월24일 오후 6시30분 프라자호텔 연수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琴麗鎬(58년卒·한국무역협회고문)동문을 선출했다.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會長人事및 신임회원 환영사, 신임회원대표 답사, 모교 학장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또 90년도의 결산과 91년도의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원

危難의 고갯길을 넘자

政治의 信賴회복 民心수습 急하다

亂局의 고비는 정말 넘었을까。확실히 넘을 수 있을까。盧在鳳前總理는 5월24일 자진퇴임하고 말았다。建國이래 두번째의 短命총리(1백46일)였다。후임 鄭元植총리서리는 아직 국회인준 직전에 있다。時局수습의 緊急召命과 非常임무를 띤 「領相」이다。총리의 이런 急速경질과 부분적인 內閣개편 「5·18」10주년행사일의 통과, 政局의 廣域선거전 進入, 그리고 정부의 새 時局수습책 발표——이런 일련의 行路가 당면한 危局극복의 分水嶺이 되고 民心쇄신의 端初가 되었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감 또한 비상하게 사실이다。

하나 앞길을 그리 樂觀할 수만은 없는게 문제점이다。어째서일까。時局사태가 그만큼 危重하기 때문이다。그 연유의 부피 또한 두렵기만 하다。局面轉換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예민한 반면, 그 전환방향에 관한 여러 主體들간의 視角은 구구각각이다。보태서 殘任期 20개월 남짓한 盧泰愚대통령정권의 말기적 취약성이 예견됨과 동시에 이른바 「大權」을 노리는 政略의 포석이 끼어들 소지도 적지는 않다。방부한 광역자자제선거와 더불어 그런 政街의 술수와 분쟁은 더욱 加熱될게 틀림없다。개운치 않은 이 形局속에서 우선 모든 野圈은 새總理에 대한 「指名철회」주장에 일을 모았다。「强性」시비와 함께 「신선감이 없다」는 評도 따라붙었다。물론 눈가늠이란 사람에 의해 다를 수 있겠지만 신임총리를 향한 이같은 砲門에서 우리 정치사회의 갈렬한 뿌리성향과 질은 어둠, 끝없는 혼란을 연상치 않을 수 없게 한다。

사실 1991년 지나간 5개월동안, 이미 우리가 겪었던 混亂과 累卵의 사회병리현상은 참으로 암담한 것이었다。그것은 難局장기화의 예고편 같기도 하였다。일부 국회議員들의 철면피한 뇌물外遊, 知性을 상실한 예능계敎授들의 대학入試부정, 政經官이 유착한 水西특혜非理, 斗山전자의 페놀放流, 源進레이온의 公害파동등 월사이 없이 뒤엉키며 온나라 안을 强打한 갖종 사건·사고의 인플레삼태는 이미 사회의 安定기반과 政治의 가치, 法과 질서를 흔들기에 足한 것이었으나 그에 따른 뒷마무리는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을 감안치 못한 수준에서 머물고 말았다。

「5월사태」라는 極限상황은 그 연장선상에서 첨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표방하면서 분출된 것이었다。운동권의 「군」들과 在野勢의 합작으로 불어난 示威의 대열은 점차극렬해졌고 그 진압을 위한 공권력의 대응 또한 강경했었다。서로의 양보없는 激突攻防시리즈는 드디어 한 大學生의 어처구니없는 「致死사건」을 유발, 국면은 드디어 焚身정국→自殺사태→屍鬪→街鬪→賃鬪의 연대현상·연쇄참상을 빚었고 필경은 總理사퇴라는 극약처방까지 부르게 되었다。

순수하게 진단할 경우, 시위학생과 경찰 사이에 극렬해진 이 攻防戰처럼 뼈아픈 悲劇은 없다。姜모군의 구타치사 이후 安葬까지의 24일 동안, 무려 9만9천여개의 화염병과 10만1천여발의 최루탄 「交戰」이 있었다。그 量은 각기 작년한 해 동안의 투척량 26%와 사용량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시위가담 연인원은 70만명을 운돌고 쌍방간의 부상자만도 3천명선에 이른다。葬禮행렬마저 빌리고 되돌아가고, 가장 장중해야 할 그 의식이 시종 「투쟁」의 일환으로 비치게 되는 異變을 또 겪었다。한데도 示威정국은 여전히 亞리를 부는 중이다。이제는 制度圈 야당마저 그 흐름에 가세하여 대규모 군중집회를 주최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여졌다。平和的인 示威文化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그 連鎖현상이 民心에 어떠한 變數작용을 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또 그 시위의 强風이 실해질 경우, 흔히 말하는 執權후기의 통치권누수현상발지와 後繼구도의 안정을 모색하는 强性체제=「힘에 의한 統治」를 복원시킬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도 어렵다。

尹 宗 鉉
〈46년 商大卒·平和文化研究院長·本報 編輯委員〉

國政운용에 改革과 順理를

건전市民과 中産層의 中心勢力 아쉬워

원래 政治란 국민의 살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그러므로 民心을 옳게 읽고 장악하려는 맑은 慧眼이나 나라의 앞날을 풍요롭게 가꾸려는 遠慮와 애국심이 따라야 한다。過慾에 눈이 먼 나머지, 事案이야 옳건 그르건, 利害타산을 앞세우거나 패거리끼리의 쑤근거림과 자리의 輪占에 급급하여 국민에게 被害를 가중시키는 처사는 政治도 正治도 아닌 것이다。

정부는 국회든 온늬의 政治圈과 政治人은 與野를 막론하고 이런 本領에서 상당히 逸脫하거나 대부분이 「落第」였다면 좀 過言일까。대충 몇가지 대목만 꼽아보면, 첫째 6·29의 要諦인 民主化의 進度가 그리 후련하지 못하다。權威주의 청산, 人權보호, 言論자유와 노동운동등 부분적인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改革立法, 偏向人事의 지양, 地域감정해소길은 주요과제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經濟실정은 오히려 후퇴일로——。물가앙등 수출부진 생산성 및 경쟁력저하, 국제수지 赤字, 기술개발의 낙후 현상이 深化되는 한편 經濟正義의 실현을 위한 金融실명제실시나 부동산투기의 근절은 지체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富益富 빈익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노사분규의 빈발, 근로의욕의 위축이 조장됨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과소비·사치낭비풍조로 말미암은 상대적 빈곤감의 농도 또한 짙해지기 마련이다。특히 장바구니 生必品價나 공공요금의 인상, 집값의 앙등같은 민생불안의 가장 「검은 그림자」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며 民生치안의 혜이, 司法처리의 불공평성문제와 함께 社會正義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시키기 일쑤다。

둘째로 政治圈은 이런 개혁과제와 是正사항에 너무나 소극적이었다。無策과 주저로 시종하거나 오히려 逆行하다시피 한 단면마저 보였다。與측은 88선거에서 국민의 意思를 정립시킨 與小野大의 세력구도를 서둘러 뭉개버리고 3黨統合의 民自號를 출범시켰다。그것은 長期집권과 獨走체제를 구축하려는 처사로 간주되는 것이었다。또 무슨 불가피한 事由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통합한 3黨은 選擧民들과의 사전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적 순서마저 잊고 말았다。합당후 드러낸 系派間의 不協和音이 念佛보다는 잿밥만 탐낸다는 世評을 사는 것도 依然한 舊態이다。

흘로 남은 野黨만 해도 그렇다。存立기반을 거의 특정지역에만 두고 있어 스스로 외로운 길을 택한 것이나 진배 없고, 地方주의의 타파와 民主체질의 성장을 속박하다시피 하는 현상은 속히 개선돼야 할것이다。아울러 사사건건 시비보다는 제도권내 受權정당으로서 선명한 자세와 국민과 국익을 위한 넓은 아량의 對話 妥結을 유도해가는 것이 大公黨으로 도약하는 길일성 싶다。

지금처럼 與野黨 모두가 고루한 보스체제에 얽매이고 自黨의원들의 하자비호나 私를 위한 내부분규 및 利權획득 權勢慾,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일부의 작태가 버려지지 않는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信賴의 死角을 회복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難局을 진정함에 있어서 바로 그 연원이 이처럼 깊고 多復的인 것임을 똑바로 포착해야 한다。要點을 再論하면 「6共」출범 이후 부풀었던 政府와 國會에 대한 일부층의 民主化 기대감이 실망을 사게되고 政治도덕성의 타락과 分配의 불공평이 상대적 빈곤감및 失意로 쌓이게 한 것이다。그에 보태 强力사건의 빈발, 統一논쟁이 激해져 社會의 不安심리가 번지는 가운데 이 틈새를 탄 일부 운동권및 在野의 체제전복투쟁과 北으로 부터의 검은공작이 음양으로 加乘작용을 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가위 만만치 않은 難局이며 危局일시 분명하다。體制전복을 위한 도전이란 특히 그렇다。그 투쟁은 파격일변도의 특성을 갖는다。政治세력의 배경이 없는 顯覆기도는 대개의 경우 暴力革命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근래 우리 주변의 운동권 젊음들이 걸핏하면 決死隊伍를 짜고 거리낌없이 집권당 당사나 공공기관을 기습, 각목과 쇠파이프·화염병으로 아수라장을 만들고 과격한 民主化口號를 외치는 것도 그 한 實相에 속한다。

示威든 농성이든 그 양상이 폭력화하면 그것은 이미 民主方式의 영역을 벗어난다。그들이 외쳐대는 民主化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상대방의 對應폭력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현실적인 可能性과 準據를 무시한 채 모두 때려부수기만 하는 폭력은 오히려 民主化도정에 역행하는 걸림돌이상,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 自由民主체제의 전복까지 노리는 暴力사태속의 이 難局, 국정이 제 갈피를 못잡다시피 하는 이亂局은 지체없이 고갯길을 넘어야 하겠다。기필코 진정되고 극복되어야 한다。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政治圈과 市民단체들이 뜻과 손을 合쳐야 할 계제이다。沈默하는대다수 국민의 바람 역시 똑 같을 것이다。우리의 發展史를 오늘로써 停滯시킬 수도 없거니와 폭력앞에 屈하는 「弱者」일 수는 더욱 없기 때문이다。

危難들파의 길은 자명해진다。우선 政治圈은 黨利黨略이나 사욕을 떠나 信賴를 회복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事態의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統治의 슬기로써 民主化의 차분하고 후련한 진전을 꾀함은 물론, 國事제반의 운용원리를 公理 順理 事理 條理에서 찾아야 한다。특히 密接인물에 치중하는 편향인사나 과잉공약은 엄히 절제돼야 할 것이다。이런 자세전환과 經濟正義, 物價安定의 可視化 없이는 民心의 刷新과 장악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건전한 市民과 良識家 및 中産層의 적극성이 정당성 없는 政權퇴진 主張이나 革命조작기도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의 체제와 생활양식, 그리고 改革의 途程을 철저히 지켜내는 社會의 中心勢를 이루어야 하겠다。모든 혼탁과 혼란에 끄떡함이 없는 이 대세력이야말로 安定과 平和와 前進을 보장하는 盤石임에 틀림없다。民主化繁榮化 統一化를 기약할 최고의 實勢며 담보자일 것이다。

일찍이 우리는 難局앞에서 후퇴없이 발전과 개척과 도약을 쟁취했던 의지의 기록, 경험의 실체를 적지 않이 갖고 있다。解放後史만 들추어 보아도 共産이데올로기의 洪水속에서 自由民主체제를 키워내는 업적을 생산하였다。불의의 赤化남침을 당했으면서도 初戰의 고난을 물리치고 침략자를 물리친 슬기와 용기를 보였다。

戰禍의 잿더미를 딛고서도 獨裁와 무능은 마다 하였고, 부존자원이 변변치 못한 여건속에서도 70년~80년대의 經濟성장을 이루며 나라의 位相을 先進國의 문턱 앞으로 이끌어 올렸다。그 사이 안팎으로 겹쳐드는 危局의 고비(4·19 5·16 6·3사태 越南파병 10·26 5·18등)를 이겨 넘긴 認苦의 경력과 自信感의 축적은 그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던가。그러면서도 끝내 護衛해온 民主韓國의 가치와 脈絡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民主化혼주의 부작용으로 지금 안고 있는 苦難, 국제대세를 외면하는듯 한 일부측의 理念혼탁과 무분별한 統一책동이 근래 좀 껄끄럽게 고리를 잇고는 있지만 結論은 반드시 險山도 넘고 激流도 헤쳐건너는 榮光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6월은 그런 克難救國의 의미가 진한 달이기도 하다。

존경하는 朴忠集선생님

잊을 수 없는 스승님

—글·趙雲濟 〈57년文理大卒·高麗大 교수〉

京城帝大 1회 출신의 碩學

權威意識없이 弟子들과 잘 어울려

「테스」등 다섯권의 譯書 내

医學공부하던 筆者, 英文學길로 引導

書藝솜씨 수준급, 친구들과 展示會도

한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나도 생각해 보니 몇분이 있다. 國民學校 5·6학년을 담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 준 日本人 敎師, 中學校때 독일어를 가르치며 人格的으로 큰 감동을 준 金奎榮선생, 개인적인 접촉으로 나를 詩人으로 만들어 준 皮千得선생, 그리고 醫豫科때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나중에 英文科로 轉科를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朴忠集선생 등이다.

나는 醫豫科를 마치고 醫大 1학년이 되었다. 醫大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解剖學을 배운다. 解剖學이란 딴것이 아니라 屍體室에 들어가 포르말린에 절인 屍體를 해부하며 직접 人體構造를 배우는 것이다. 깡마른 屍體를 직접 만지며 칼로 살을 베어가며 그 이름을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위가 약해서 解剖學을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음식을 먹지 못했다. 고기나 생선, 심지어는 두부까지 屍體의 살같이 느껴져 못 먹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깡마른 屍體가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文科로 轉科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 文科에 가야 하느냐가 고민거리였다. 國文科·獨文科·英文科를 두고 고민하였다. 그래서 朴忠集선생께 상의를 드렸더니 英文科가 좋을거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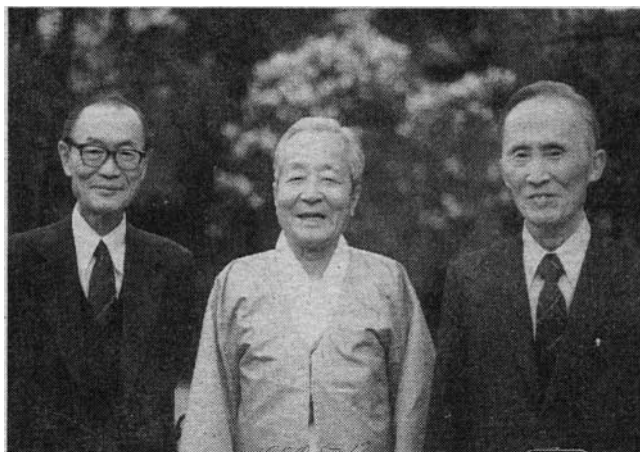
그래서 英文科로 轉科해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영문과에서는 朴선생님에게서 19세기 英詩 英隨筆등을 수강했다. 그리고 대학생중에서 그런분은 오직 한분밖에 없었다. 高錫總선생도 계셨지만 高선생은 입학은 해방전이었고, 졸업은 해방후였다.

외국문학을 수학하는데는 세개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번역이고 두번째는 번안(imitation)이고 세번째는 競作(emulation) 단계라고 한다. 선생님은 초기 영문학자로 이 번역에 주력하여 토마스 하디의 「테스」·「The Return of the Native」 그리고 헤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등의 소설을 포함해 다섯권의 책을 번역하셨다. 모두가 名譯이다.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인격자로서 아주 훌륭하셨다. 威興永生中學校를 다니던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이오기로 약속이 되어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으나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초조히 기다리던 선생님은 손수 독립선언문을 즉석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앞에서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일로 永生中學校에서 퇴학을 당하고 서울의 私立중학교로 전학을 하셨다.

京城帝大 英文科를 졸업한 후에 春川高普의 영어교사로 내려가서 영어와 조선어를 맡아가르치셨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 삼문수회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反日思想과 정의감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일본경찰이 우리의 知性人들을 모두 잡아가는 눈치여서 선생님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연히 집을 나섰다고 한다. 威興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으셨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文理大 의예과 교수로 오셔서 6·25후에는 醫豫科部長을 하시다가 英文科교수로 오시게 되었다.

그당시 文理大교수들 사이에는 權威意識이 팽배해 있었다. 내 분야에서는 내가 한국제일이라는 자존심이 가득해서 태도에는 거만함이 가득하여 학생들을 대할 때도 위엄을 갖추어 부드러운 곳이 없었다.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인 교수들이 취한 허세인데 그것이 그대로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의 전통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학생들은 뒤로 수군거리며 거짓 허세라고 비웃곤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다정하고 인자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朴선생님은 그런 권위의식이 없으셨다.



◇1974년 어느날 前鎭午박사(중앙) 댁에서 자리를 함께했던 朴선생님(右), 왼쪽에 계신분은 高大의 이은상선생

그런 간단한 몇마디가 학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선생님은 늘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의하라고 강조하셨다. 몸이 약하면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春川高普 교사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腦를 다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말씀하고는 쓴웃음을 지으시곤 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허약해보이는 선생님은 93세까지 장수하셨다. 天壽를 다 하셨다. 오래 사시기만 한것이 아니라 80세후반부터 90세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論語를 강의하시고 붓글씨를 계속 써서 친구들과 함흥전시회도 열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서 책을놓지 않으시고 독서를 계속하셨다 한다. 著書가 많지않아 유감이지만 그것은 外國文學을 전공한 분들의 공통된 약점으로 큰 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평생 번역도 하나 하지 않고 글도 하나 써보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들의 수가 수천·수만명에 이르고 그중에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또한 수없이 많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가슴에 가득한 존경심으로 남아 그것을 합치면 얼마나 클까? 南山보다 못지 않겠지. 선생님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국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英文學者로는 다섯권의 번역서를 내고, 허약하고 다친 몸으로 天壽를 가까이 사셨으며 母校에서 정년퇴직을 한 몇 안되는 幸運兒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의 冥福을 빈다.

자랑스런 서울大家族

3代이은 成樂昌동문 一家

직계 子女孫 14명 母校출신

兄弟 食口까지 합치면 40명 넘어

한세대의 경험이 다음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세대간에 共感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벅찬 경험이 될것이다。「자랑스런 서울대가족」이번호에는 3代에 걸쳐 40여명이나 되는 동문이 一家를 이루고 있으며, 가히 서울대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成樂昌동문(32년 農大卒) 일가를 찾았다。

成동문은 요즘 族譜정리작업에 여념이 없다。근래 청소년들이 동양사니 서양사니 하는 公的인 역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私的인 역사를 상실해놓은 家史, 즉 族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成동문은 이 일이 近親族들의 화합과 친목도모에 도움이 된다면 흐뭇해 한다。

成동문은 1909년 충남 예산에서 은행원이던 成觀永선생과 金仁經여사의 4男3女중 장남으로 태어났다。成동문은 부친이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모두 양력으로 하고 딸들도 서울로 상경시켜 新學問을 하게 할 만큼 개화한 분이었다고 회고하고 자신과 형제들이 모두 新學問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친의 덕이라고 말한다。成동문은 13세가 되어서야 국민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다。부친은 成동문이 醫學을 공부하기를 원했으나 成동문은 어려서부터 덴마크의 농장을 동경해왔고 또 직접 일선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재 母校農大의 전신인 水原高等農林學校에 지원, 합격을 해 우리 母校와의 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다。母校農大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母校명예교수인 趙伯顯선생은 成동문이 「지성으로 숭배하는 은사이다。趙伯顯선생은 水原高農의 전신인 水原農林專門學校 1회졸업생이며, 水原高農 재직시절에는 일본인 교사들 사이에서 우뚝솟은 한국인 교사로서 한국인 학생들의 은근한 자랑이었다고 成동문은 회고한다。成동문은 母校졸업후 공직생활로 평생을 일관했는데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일처리로 간 곳마다 화제를 뿌렸다。특히 충남 해미면장시절에는 부정이 만연한 행정을 보고 스스로 면장을 자원, 양심껏 일을 처리해 지금도 해미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成面長」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이때부터 成동문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보답을 얻는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공직생활속의 이러한 경험들은 평생의 생활신조로 이어졌는데 이는 첫째, 至誠이면 感天 둘째, 易地思之 세째, 外柔內强의 정신이다。이러한 신조는 자녀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成동문은 자녀들에게 한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이점은 특히 자녀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父母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자녀들도 그들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 成동문의 생각이다。자녀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부인 朴勝姙여사에게 공을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항상 바깥일에만 바쁜 자신에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묵묵히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힘쓴 부인이 한없이 고맙다고。

成동문은 슬하에 3男4女를 두었는데 이들 중 6명이 母校를 나왔으며 孫子女까지 합해 直系에만 14명의 동문을 두고 있다。成동문은 또 아래로 남동생 셋과 여동생 셋을 두고 있는데 남동생 셋이 모두 동문이며 여동생들도 夫君이 동문이거나 자녀들 대부분이 母校출신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40여명의 大동문가족을 이루고 있다。成동문의 次弟 樂興동문은 37년 法大를 졸업, 평생을 교직으로 일관했으며 직계에 6명의 동문을 두고 있다。3弟 樂應동문은 50년 醫大를 졸업, 현재 梨大교수로 재직중이며 4弟 樂正동문은 54년 工大를 졸업, 경인에너지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한편 成동문의 妹 樂仁씨는 홍익대 교수인 長男 閔康(50년 文理大卒)동문을 비롯하여 슬하에 7명의 동문을 두고 있고, 樂恩씨는 법무부장관을 지낸 李澔씨와의 사이에 6명의 동문을, 樂潤씨 역시 부군인 李文弘동문(54년 文理大卒)과 함께 2男이 동문이다。

◇成樂昌동문은 슬하에 3男4女를 두었는데, 6명을 同門으로 길러냈다。사진은 60년대에 찍은 것으로서 앞 오른쪽이 成同門이다。

成동문은 중심으로 직계가족들의 동문면면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이같이 成동문일가는 교수, 기업인, 의사, 외교관등 다양한 경력으로 사회의 여러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어 명실공히 「자랑스런 서울대가족」으로서 손색이 없다。

成樂昌 일가 동문현황

區分	姓名	出身大	職業
本人	成樂昌	32년 농대卒	前예산농고교장
弟	成樂興	37년 법대卒	前동성中교감
弟	成樂應	50년 의대卒	이화여대교수
弟	成樂正	54년 공대卒	경인에너지부회장
1男	成宇慶	57년 농대卒	동양백주부사장
子婦	任貞彬	61년 사대卒	한양대교수
2男	成正慶	66년 문리대卒	파키스탄公使
3男	成活慶	73년 공대卒	창원대교수
子婦	李鎬珍	76년 사대卒	前교사
1女	成禮慶	58년 치대卒	성치과의원원장
2女	成洪慶	61년 사대卒	영양사
3女	成和慶	63년 사대卒	고려대교수
3婿	鄭昌基	64년 문리대卒	KBS기획제작국장
4婿	李昌弘	66년 의대卒	고려대교수
孫	成耆允	89년 공대卒	유공
孫	成耆完	89년 미대卒	대학원생
外孫	池斗鉉	89년 미대卒	대학원생
外孫女	鄭潤珠	91년 가정대卒	대학원생

가족 모임이 곧 同窓會

教授·企業人등 경력도 다양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모교동문가족의 입장에서 成동문은 자녀들에게나 후학들에게 「서울大人」이라는 것은 결코 권리나 자랑이 아니라 의무이고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한다。사회의 지원에 힘입지 않고서는 서울大人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자만에 빠지지 말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주력하라고 당부한다。자신의 生日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成동문은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을 바라볼때면 역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낀다고。

六甲으로 명기된 李朝5백년史를 서기로환산하는 3년간의 작업을 막 끝냈다는 成동문은 이제는 창녕成氏 3백년史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말한다。

연륜이 넘은 나이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탐구의 자세를 잃지않는 成동문을 통해, 우리 동문의 뿌리가 연연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洪慶華기자〉

研究所에 希望을 걸고

新素材 공동研

〈2〉

企劃 取材

첨단 薄膜기술의 産室

우수센터 選定돼 발전 새 轉機

政府의 과학政策에도 큰 영향

지난해 7월4일 모교 工大쪽 순환도로변에는 국내 기초과학분야의 또하나의 산실이 탄생했다。이름하여 「新素材공동연구소」(소장 李東寧교수·금속공학과)。

흔히 인류의 역사를 석기·청동기·철기등의 시대로 구분하는데서 알수 있듯이 새로운 재료의 발견, 발명 그리고 응용은 새로운 사회를 탄생 발전시키는 핵심역할을 해왔다。더구나 현대에 와서 에너지, 정보, 유전공학등 미래 문명사회를 주도해 나갈 각종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재료, 즉 신소재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다。

신소재공동연구소는 「고도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첨단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뒷바침해줄 신소재에 대한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이분야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및 대학간 공동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신소재연구에 필요한 高價실험장비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번 새연구동을 갖게된 신소재공동연구소는 지난 88년6월 본부직할 비법정연구소로 설립됐는데 「금속재료부」 「요업재료부」 「전자재료부」 「섬유·고분자및 재료분석부」 등 5개 연구부서로 구성돼있다。

새로 준공된 연구소 건물은 지상4층, 지하1층, 총건평 1천5백평 규모로 16개의 연구실, 33개의 실험실, 3개의 세미나실등 제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총공사비 26억원을 들여 日進그룹(회장 許鎭奎·63년 工大卒)이 건축·기증했다。同연구소는 각학교 산업체 국책연구소에서 파견된 연구원들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94년까지 연구소에 상주할 전문요원및 행정요원의 확보를 끝낼 예정이다。한편 연구소 운영과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은 과학재단, 서울대등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기업체와의 공동연구및 위탁연구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특히 규모가 큰 실험장비의 경우 산업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90년도에 이미 科技處에서 지정하는 신소재분야의 우수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에도 5~10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는등 98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원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東寧소장은 「신소재분야가 단기간에 결실 연구에 의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이윤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기업연구소나 국가시책에 따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소보다는 대학의 연구소가 신소재분야의 연구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막 및 단결정이야말로 복잡한 기능과 정확한 동작을 하는 素子의 근본 가공기술이며 산업주도의 유일한 길」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同연구소는 「新素材薄膜가공및 結晶성장연구센터」(RETCAM)를 보적적으로 가동, 전자재료·자성재료 기타 신소재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가전제품, TV영상제품, 휴대용통신장비등 각종 전자장비가 소형경량 고성능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를 위한 원천기술인 Microelectronics에 관한 연구 기술축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때 同연구센터에 거는 기대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 許鎭奎동문(일진그룹회장)이 건축, 기증한 신소재공동연구소 전경。

『박막가공및 결정성장기술은 대부분 高眞空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전자·통신·자동차·우주항공등도 등 첨단산업분야와 깊은관련을 갖고 있습니다。최근엔 박막의 두께가 옹스트름단위로 얇아지는 추세고, 單結晶의 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미세구조의 특성분석및 미량성분의 조정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李소장은 첨단 신소재의 발전이 결국 이같은 핵심박막가공및 결정성장기술의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연구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李소장은 이웃 日本이 창조과학기술사업의 하나로 구성한 신소재개발단의 과제중 박막가공과 결정성장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미국 영국등도 21세기를 대비한 고도첨단기술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해 그 중요성을 대변했다。

참고로 RETCAM은 구성된 3개 연구실의 연구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재료연구실 : 레이저가공기술·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위한 박막가공기술·압전재료및 복합반도체재료의 합성분석을 주연구목표로 하며 특히 3차원집적, GaAs, InP 및 CdTe같은 복합반도체재료 그리고 압전재료의 박막가공▲자성재료연구실 : 연자성및 경자성의 박막은 첨단산업의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따라서 새로운 자성재료의 합성및 이의 박막가공 기술개발이 주요과제이며, 급속응고장치(RSP)및 다양한 스퍼터링기술등의 개발이 주종을 이룬다。▲결정성장연구실 : 2-6족, 3-5족및 규소의 단결정을 챠크랄스키, 부유대및 MB기술에 의해 성장시킨다。한편 에피층 형성에 의한 단결정박막도 주요 기술개발과제이다。

RETCAM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보, 연구소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학부 석·박사과정및 박사후과정을 설치, 실험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외래분교육프로그램은 전국의 교수및 박사취득자를 대상으로 신소재에 대한 지식의 전수를 담당하고 있다。이를 위해 同연구소는 여름과 겨울방학중에 산업계연구원들을 위한 단기강좌의 개설을 마련해놓고 있다。아울러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일반에게 연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對外 敎育기능 수행등 프로그램 多樣

RETCAM은 대학간 공동연구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 이 분야 국내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전망돼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기능도 중시하고 있다。따라서 산업계 연구소의 주요인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실적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고가의 분석장비및 가공장비등을 산업체에서 이용하게끔 유도, 중소기업들도 자체의 설비없이 연구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체와 전문인력간의 창구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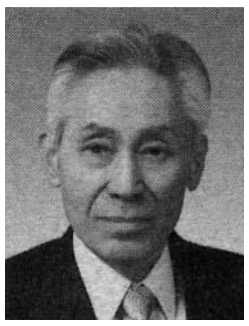
신소재공동연구소의 설립이후 同연구소는 꾸준히 정부와 민간기업체등에 신소재연구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결과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예를들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중 중점지원분야로 신소재분야가 선정될수 있었고, 교육부의 신소재분야 특정연구비가 책정되게 끔 했다。아울러 신소재공동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과학기술처 산하의 연구소도 이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신소재연구사업단이 발족됐으며 한국표준연구소에 신소재특성평가센터가 설립되는등 국책연구소의 연구센터 설립에도 자극이 되고 있다。

박막기술을 이용한 素子응용기술 개발은 낙후된 국내 연구개발능력과 조악한 연구자원(예산·시설)을 고려할때 보다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이렇게 볼때 신소재공동연구소에 거는 기대는 선진국에 피동적으로 예속돼 있는 첨단산업을능동적이고도 독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K〉

城北洞비둘기

名譽敎授 칼럼



鄭 英 昊
〈前 母校 自然大 교수
自然保護中央協 會長〉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마당같이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 돈다

푸른 하늘 한아름에 껏 맞아 안았을때 닫혀 있던 가슴은 활짝 열리고 마음은 탁 트인다. 오죽하면 「한국속의 세계 제일은 닭고 밟은 가을 하늘」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나라의 자연은 본디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왔던 것이다.

「금수강산」이라 불렀는데 우리나라 어느곳이나 발이 가 닿는곳 장이면 으레 우뚝우뚝 솟아 오른 크고 작은 산악들과 그 품 속의 그윽한 숲, 계곡의 싱그러운 나무 그늘 밑에 앉으면 가지에서가지로 건너 날아가는듯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땅을 통틀어서 「금수강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강산이 지녀온 본디 모습이며 자연 생태계의 있는 그대로다.

錦繡江山 축복받은 大自然

技術文明·産業개발로 生態系 큰 위기

「생명의 얼개」가 부서진다

자연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온갖 생물들의 세계는, 저마다의 삶을 지니는 생명체들이 서로 아기자기하게 엮히고 또 재치있게설키어서 대자연 속의 다른 부분들과 더불어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짜임새, 즉 「생명의 얼개(Web of life)」로 엮어져 있다. 생명의 얼개는 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지니는 온갖 악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존재도 이자연 생태계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악기에 불과하며, 한낱 악사일 따름이다. 오케스트라의 멤버, 악단원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악기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지니는 본래의 음색을 발휘할수 없게 되어 말은바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럴 경우 그 심포니의 연주는 제 아무리 웅장한 곡목이었다 해도, 또는 뛰어난 지휘자의 지휘였다 하더라도 듣는이로 하여금 흥분한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것은 뻔하다. 이렇듯 자연의 얼개, 즉 자연의 생태계는 정밀하고도 교묘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짜여져있다.

야생 생물들의 멸종 위기

이처럼 모든 생물이 조화 속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비롭게짜여져 있는 자연 생태계는 기술문명과 산업개발의 열풍 때문에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성북동 비둘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려진 그대로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쫓기는 새』가 되고 말았다.

『오늘의 새는 내일의 인간(today birds tomorrow man)』

이것은 국제 자연 보전 연맹(IVCN)의생물의 종(種) 보존위원회가 동·식물 애호를 위해 내세운 구호다.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들의 운명은 내일은 인간의 운명으로 이어져 인간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새의 경우를 거울 삼아 동·식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낌으로써 인간의 내일에 불행이 다가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주변은 어떠한가. 산삼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임에도 심마니란는 채취 전문가들이 마구캐내는 바람에 이제는깊은 산 고요한 숲 속에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어 세계적희귀 내지는 절멸 위기 식물로 되어버렸다. 또 뱀이라면 구렁이나 독사와 무독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조리 잡아내어서 들과 밭에는쥐들이 들끓어 날뛰게되었다. 이제는 또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는 개구리를 탕반으로 만들어 입맛을 돋우고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생태계의 먹이 사슬이깨어져서 농업이나 인간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의 보복으로 되돌아올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사람들은 설악산의 반달곰과 산양을 닥치는대로 빌렵총으로 쏘아잡았다.

지리산의 사향노루는 끝내 자취조차 찾을길이 없다. 독도의 바다사자도 없어졌다. 동해안의 돌고래도 이제는 오지 않는다. 야생의생물들에 있어 우리나라는 실로 수난의 땅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도사린 야만의 응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쓸개 빠진 위인

李 純 炯 〈62년 醫大卒·母校 교수〉

누구나 자기자신만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학교때 남들이 풀지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나만 풀었다든지,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데 자신은 총에 맞았는데도 죽지않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였다든지 하는 경험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등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배우면서도, 또 많은 환자들을 대하게 되면서도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얼른 씻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교도소하면 죄수와 교도관, 경찰서하면 범인과 경관이 연상되지만 결코 죄수와 교도관이 같을 수 없고 범인과 경관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이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같을 수 없기에, 의사가 환자가 된다는 사실은 의사에게 치욕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의사자신은 다 죽게되거나 아파서 못견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고, 자기 가족도 다른 의사나 병원에 보내는 일이 없다. 때문에 의사나 의사가족의 치료는 보통사람들 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니까.

비록 가짜의사로 자처하긴 해도 명색이 의과대학 교수인지라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벗어나랴! 어느 일요일날 아침 느닷없이 응급실로 실려가 배를 째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눈깔사탕만한 담석이 담낭속에 두개나 들어있어 통증과 발열이 심했기 때문이다. 집도의의 말로는 담낭이 터지기 직전이였다나! 그래서 이 쓸개주머니—쓸개보를 떼어내야 했단다.

여기서 비로소 보통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담석도 생기고 또 다른이와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수술할 때의 마취방법도 같고 쓸개보가 붙어있는 위치도 같다는 사실을 체험하였기 때문이 없는 위인에게서 쓸개를 떼냈으니 정녕 쓸개빠진 놈이 되고 말았다. 웅담이 곰 한마리값의 거의 다라고들 하는데, 곰이 아니라도 이제 값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병상에 누워서 또 한가지 느낀것은 옛날에 비하여 우리 스스로도 놀랄정도로 외과수술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뱃속 깊은곳에 있는 쓸개보와 담석을 지퍼를 열고 빼낸듯 감쪽같이 떼어내고 빼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얼마전에 肝이식수술을 받았던 동료가 건강한 모습으로 문병을 왔다는 사실이다.

정말 이런 발달추세로 나간다면 마치 자동차를 수리할때 헌 부속품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듯, 인체의 병든 臟器를 건강한 사람의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아무곳에나 쓰러져 잔다음 깨어보면 소경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도둑들이 각막이식에 쓸 각막을 멀쩡한 사람의 눈에서 떼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과수술, 이식술이 발달할 수 록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몸조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 노상의 고장차가 순식간에 해체되듯이 잠시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간이고 콩팥이고 염통이고 남아나지 않을수도 있으니 말이다. 평소에 안하던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혹시 쓸개가 빠진데서 오는 증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同門수필

이다. 아니, 이제는 보통사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것이다. 남들에게 다 있는 쓸개보가 없지 않은가?

세간에서 쓸개, 즉 膽하면 겁없고 용감스런기운을 일컬기에, 용기있는 사람을 대담하다 하고 또 원수를 갚고자 오래 고생을 참고 견디는 것을 臥薪嘗膽이라 하는데, 원래 겁많고 용기와 집념

▲盧 桓(38년 師大卒·前광복회全北支會長)=최근 자신의 독립운동교육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나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여명사에서 펴냄。

▲尹天柱(47년 文理大卒·前母校총장·本會理事)=최근 「한국정치체계」라는 저서를 일조각에서 펴냄。한편 母校 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을 비롯 4개 대학에서 정치특강도 계속 맡아 진행중이다。

▲金相廈(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5월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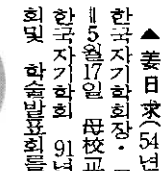
▲金永敦(49년 師大卒·大韓三樂會회장·本會理事)=91년도를 도덕성회복운동의 해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5·6월에는 가두계몽선전·강연회·좌담회등을 개최。

▲文太俊(50년 醫大卒·보건의료정책연구소회장·本會理事)=5월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韓·美·日 3개국 학자들이 참가하는 「21세기를 향한 보건의료세미나」를 개최。

▲林光洙(52년 工大卒·林光토건회장·本會理事)=5월7일 삼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충북출신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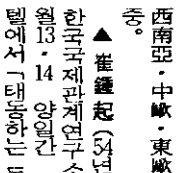
▲趙完圭(52년 文理大卒·母校總長)=5월24일문화부 박물관분과위원장에 선임。

▲盧隆熙(52년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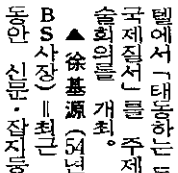


▲姜日來(54년 工大卒·한국자기학회장·母校교수)=5월17일 母校교수회관에서 한국자기학회 91년도 정기총회및 학술발표회를 개최。

▲盧信永(54년 法大卒·前국무총리·本會理事)=대통령특사로 금년가을 우리의 유엔가입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 출국하여 西南亞·中歐·東歐등을 순방중。



▲崔鍾起(54년 法大卒·한국국제관계연구소소장)=5월13·14 양일간 서울힐튼호텔에서 「태동하는 동북아의 신국제질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徐基源(54년 商大·KBS사장)=최근 자신이 그동안 신문·잡지등에 기고했던 낚시에 관한 글들을 모은 수필집 「물따라 고기따라」를 펴냄。

▲李光壽(54년 商大·本會理事)=5월28일 서울신탁은행장으로 전장에서 수출입은행장으로 전보。

▲宋庸植(55년 法大·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5월14일미국의 경제석학 월트로스토박사를 초청해 국내 경제전문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

▲盧寬澤(55년 醫大卒·서울大병원장·本會理事)=5월14일부터 20일까지 일본에서 연린 이비인후과학회 총회에참석, 특강。

▲金永基(56년 工大卒·前LA지부동창회회장)=최근 美남가주에서 在남가주 서울大동창창립회를 결성, 회장에 취임하고 1차로 1만7천불을 모금。

▲李憲組(57년 文理大卒·金星社사장·本會理事)=5월12일 열린 가전산업협의회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됨。

▲金雄世(57년 商大卒·롯데物産사장)=5월15일자로 롯데월드 사장으로 겸직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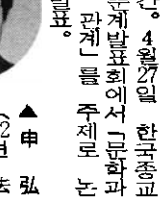
▲金昌達(57년 商大卒·한국기술개발사장)=5월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91년도 한국경영자상」을 수상。

▲李忠雄(58년 工大卒·母校교수)=4월20일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李康煥(58년 法大卒·本會理事)=5월28일 대한교육보험 부사장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됨。

▲李揆東(59년 醫大卒·母校교수)=최근 죽년여성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룬 「위기의 여자, 이렇게 극복하라」라는책을 펴냄。

國際茶文節에 참석, 「世界茶人의 밤」을 주최。



▲李夏雨(62년 法大卒·前올림픽조직위원회사무총장)=5월13일자로 금호그룹고문에 취임。

▲崔浩(63년 文理大卒·대현엔터프라이즈대표·本會理事)=5월10일 서울강변한신코아오피스텔 1067호에 한국정치 PR연구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가짐。

▲李海旭(63년 商大卒·한국통신사장·本會理事)=5월10일 종로구청관내 소년소녀가장21명을 초청, 다과회를 베풀고 매달 1인당 5만원씨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함。

▲李浩進(64년 文理大卒·국

▲李東燁(65년 文理大卒)=4월20일자로 신용보증기금 대구본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羅禎煥(66년 師大卒·亞南정밀부회장·本會理事)=5월20일 제26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특허진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李容旭(66년 大學院卒·母校보건대학원 건연구소장)=4월26일 보건대학원 회의실에서 제8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가짐。

▲朱良子(66년 大學院卒·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5월9일 국제직업여성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분별있는 여성상」을 수상。

▲崔日燮(67년 文理大卒·母校교수)=4월 27일 서울여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학회 봄철 학술대회겸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에 피선。

▲李丙台(67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학회장·本會理事)=최근 중국기행문집 「北京·延邊 그리고 백두산」을 출간。

▲明魯哲(69년 齒大卒·前齒協공보이사·本會理事)=4월20일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91년도 齒協定期總會에서 제13회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

▲李萬甲(73년 大學院卒)=想白 李相佰선생의 25주기를 맞아 5월7일 하얏트호텔2층 튤립룸에서 발기인23名과 함께 추모의 밤을 가짐。

▲李康斗(73년 行政大學院卒)=5월18일 소련주재 한국대사관 초대 경제담당공사로 부임。

▲李在賢(74년 法大卒·국립세무대학교수)=4월15일 재무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鄭夢準(75년 商大卒·國會議員·本會副會長)=5월19일울산 동구에서 방어진공원개발의 일환으로 건설한 축구장 준공식을 가짐。

▲金恒默(76년 大學院卒·부산대교수)=5월4일 열린 한국자연사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피선。

▲姜熙東(79년 法大卒)=4월2일 강남구 논현동에 신일관세사무소를 개업(TEL: 516-3101~6)。

▲金偉泳(79년 社會大卒·대한지적개발연구소장)=4월11일 母校 호암생활관에서 「일제식민통치잔재극복을 위한 문화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金正秀(83년 行政大學院卒·前보건사회부장관)=5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4차 WHO총회에 참석, 1백67개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과 공해방지및 2000년대의 인류건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李永林(85년 音大卒)=5월19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독창회를 가짐。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掲示板

❀이현철(85년 師範大卒)군·김정희(89년 師範大卒)양=

玄勝鍾 敎總회장

同門을 찾아서

「敎育 바로세우기 운동」主唱
"解職교사 敎壇복귀 힘쓸터"

『앞으로 敎總이 노력해야 할일은 크게세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지난 4월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敎總) 신임會長에 선임된 玄勝鍾(43년 法大卒·翰林大 총장) 동문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

그 첫째가 교육재정확보, 둘째가 교육풍토조성 다음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고 밝히는 玄동문은 『지금까지 교육이 정상적인궤도를 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만큼 교육이 제길을 잡아 사회기강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43년 京城帝大 法文學部를 졸업한 玄동문은 平南 价川생으로그 자신은 애초에 理工계열에 뜻을 두었으나준엄하신 선친의 뜻에따라 法學을 전공한 것이 그럭저럭 45년간을 교단에 서게된 동기라면 동기라고。

會長으로 취임하기전에 바라보았던 敎總과 안에서 지켜본 현실에 대해 묻자 玄동문은 『어차피 敎總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올바른 교육」에 있는만큼 그러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것』이라며 『재임기간동 해직교사들의 교단복귀와 명실상부한 30만 敎員의대표단체로서의 敎總을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4년 춘천의한림大에 부임해 93년2월이 임기인 總長직을 맡고 있기도한 玄동문은 「正道를 걷는 대학」「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밝히면서 『한림대학교의 교수진용을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일류 교육자들이 모인만큼 총장임기 후에도평교수로 남아 우리 대학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실제로 82년 창설한 한림대학교에 저명 원로학자들이 운집하기까지에는玄총장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昨今의 사회분위기와 교육의 位相에 대한견해를 묻자 玄동문은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온 터라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교육이 바로돼야국가기강과 사회의 윤리도덕이 확립될 수 있는만큼 교육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교육 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라고밝힌다。이어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을 구하자 『학생들은 現在 한다』고 답답하게 말한다。그는 이어 『해방이후 4·19를 지나오는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당연히 습득해야할 지식이나 인격·교양수련에 소홀하게 되는학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듬 제자리를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陳鼓鍾前총리, 申鉉碻 三星物産회장과 동기생이기도 한 玄동문은해방직후부터 30여년간을 高麗대학교에 재직하다가 74년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거쳐 84년도한림대학교에 몸담기까지 우리나라 근대교육사를 통찰해온 산 증인。주변에서는 그의 이번敎總회장직 취임을 두고 「常軌를 조동하는 인물」로서 현금의 어려운 교육환경 개선에나름대로의 몫을 해낼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론을 펴기도 한다。현재 춘천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산학산에 올라 도수체조를 하는 정도가 취미라면 취미라고。

〈金炅勳 기자〉

訃音

▲趙容郁(29년 文理大卒 동덕여대명예학장)=4월20일 서울대병원서 老患으로 별세 향년 89세。

▲金仁喆(62년 師大卒·新進印刷公社會長) 母親喪=4월25일 9시 老患。

結婚

❀임규진(86년 社會大卒)군·정진희양=6월1일 12시30분。

❀김주명(87년 人文大卒)군·김혜곤양=6월1일 14시

❀김종건(90년 自然大卒)군·최우정양=6월1일 15시30분。

❀장동민(89년 保健大學院卒)군·조혜원양=6월2일 12시。

❀송한준(81년 工大卒)군·심귀숙양=6월2일 13시30분。

❀남봉현(90년 保健大學院卒)군·이영희(87년 醫大卒)양=6월2일 15시。

❀우석균(91년 醫大卒)군·홍성은양=6월6일 12시。

❀고영찬(84년 工大卒)군·홍미아양=6월7일 13시。

❀한준수(86년 經營大卒)군·이미경양=6월8일 12시。

❀김건회(88년 法大卒)군·심미아양=6월8일 13시30분。

❀인병섭(91년 社會大卒)군·김귀옥(87년 社會大卒)양=6월8일 16시30분。

❀박종화(89년 農大卒)군·김옥양=6월9일 12시30분。

❀백승준(工大재학중)군·공숙경양=6월9일 14시。

❀김인중(87년 法大卒)군·강미정양=6월9일 15시30분。

❀정재현군·오정옥(87년 農大卒)양=6월11일 13시。

❀진신식(86년 自然大卒)군·임미영양=6월13일 15시。

❀구재완(89년 社會大卒)군·김지선양=6월14일 14시。

❀김성수(87년 經營大卒)군·임선애(89년 行政大學院卒)양=6월15일 12시30분。

❀김현정(86년 工大卒)군·김현정양=6월15일 14시。

❀원승연(87년 社會大卒)군·박영옥(87년 師範大卒)양=6월15일 15시30분。

❀박인복(87년 社會大卒)군·김미정양=6월16일 12시30분。

❀심재현(89년 經營大卒)군·김숙경(89년 藥大卒)양=6월16일 15시30분。

❀문영섭(90년 人文大卒)군·김현숙(88년 師範大卒)양=6월22일 12시。

❀서용원(85년 經營大卒)군·김태희양=6월22일 13시30분。

❀김봉수(87년 自然大卒)군·이광숙양=6월22일 15시。

❀윤성호(87년 工大卒)군·한숙희양=6월23일 14시。

❀임채영(87년 工大卒)군·조미영양=6월23일 15시30분。

❀이해관(88년 自然大卒)군·조미연양=6월25일 15시。

❀나상현(86년 工大卒)군·김연경(89년 家政大卒)양=6월29일 13시。

❀최병조(86년 經營大卒)군·김미정양=6월29일 14시30분。

❀권상기(89년 大學院卒)군·송남희양=6월30일 12시30분。

❀정학균(83년 社會大卒)군·이선주양=6월30일 14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선임됨。

▲金在中(53년 工大卒·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기술위원장·本會理事)=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和蘭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준비를 위해 6월17일 출국예정。

▲鄭熙彰(52년 法大卒·前교육부차관·本會理事)=5월6일

▲李御寧(56년 文理大卒·문화부장관·本會理事)=5월7일 金經聯 제23기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석, 「기업문화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

▲崔浩中(56년 文理大卒·부총리겸 통일원장관·本會理事)=5월8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19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주재하고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등을 포상。

▲朴世直(60년 文理大卒·前올림픽조직위원장·本會理事)=5월9일 美로스앤젤레스의남가주대학에서 「서울올림픽과 역대올림픽의 외국어교육훈련비교분석및 미래올림픽의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음。

▲全榮善(61년 工大卒)=5월28일 극동건설 부사장에서 국제종합건설 부사장으로 전보발령。

▲辛大用(57년 農大卒·韓國茶人聯合會 이사)=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中國에서 열린 「차문화를 통한 한중교류」를 주제로 한 한중차문화교류회 결혼하는가」를 풍경출판사에서 펴냈다。

▲黃弼昊(62년 文理大卒·동국대교수)=수필집「여자는 왜

▲朴世直(60년 文理大卒·前올림픽조직위원장·本會理事)=2회 1회 八峰비평문학상을 수상。

▲金峻經(64년 商大卒·本會理事)=5월1일자로 두산유리사장에서 두산산업사장으로 전보발령。

▲李善浩(64년 商大卒)=5월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부 이사로 승진。

▲河進五(64년 商大卒·本會理事)=5월24일 상용투자증권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장·本會理事)=5월10일 서울신정호텔12층 간담회에서 91년도 동창회를 개최。

학과동창회 사장·익고

자연구소장에서

부사장에서

6월8일 15시。

❀김귀옥(87년 社會大卒)양=6월8일 16시30분。

❀박종화(89년 農大卒)군·김옥양=6월9일 12시30분。

❀백승준(工大재학중)군·공숙경양=6월9일 14시。

❀김인중(87년 法大卒)군·강미정양=6월9일 15시30분。

❀정재현군·오정옥(87년 農大卒)양=6월11일 13시。

❀진신식(86년 自然大卒)군·임미영양=6월13일 15시。

❀구재완(89년 社會大卒)군·김지선양=6월14일 14시。

❀김성수(87년 經營大卒)군·임선애(89년 行政大學院卒)양=6월15일 12시30분。

❀김현정(86년 工大卒)군·김현정양=6월15일 14시。

❀원승연(87년 社會大卒)군·박영옥(87년 師範大卒)양=6월15일 15시30분。

❀박인복(87년 社會大卒)군·김미정양=6월16일 12시30분。

年會費내주신분

〈이사 : 3월 21일~4월 30일
일반 : 3월 1일~3월 20일〉

지난호 未揭載분

〈3월 1일~3월 14일〉

一般會員

◇法科大學

정만익(54) 정연조(59) 정종석(56) 정희준(63) 조규향(64) 조병선(61) 조웅호(58) 조주우 조택근(58) 지성우(70) 최규영(60) 최달윤(63) 최상태(64) 최상만(66) 최승만(66) 최영기 최우석(83) 최종화 최창섭(65) 한영석(61) 허태원(57) 황병호(58) 황병일 홍영선(55) 한영배(70) 태범식(55) 최원백 최영문(78) 최승만(63) 최선근(57) 최병주(82) 최민호(82) 최기혁 차상필 조해근(82) 조태현(73) 조육희(67) 조용준(53) 조대연(73) 조 석(55) 정지태 정원익(66) 정봉락

정만익 정연조 정종석 정희준 조규향 조병선 조웅호 조주우 조택근 지성우 최규영 최달윤 최상태 최상만 최승만 최영기 최우석 최종화 최창섭 한영석 허태원 황병호 황병일 홍영선 한영배 태범식 최원백 최영문 최승만 최선근 최병주 최민호 최기혁 차상필 조해근 조태현 조육희 조용준 조대연 조 석 정지태 정원익 정봉락

◇師範大學

윤덕성(44) 구장회(75) 김경호(55) 김상구(64) 김주홍(57) 김영철(56) 김정순(69) 김종렬(87) 노태선(80) 박독근(62) 박수용(55) 박점모(78) 박영식(55) 박창석(55) 박희순(64) 송기창(83) 신도순(53) 양영렬(75) 유선희(79)

윤덕성 구장회 김경호 김상구 김주홍 김영철 김정순 김종렬 노태선 박독근 박수용 박점모 박영식 박창석 박희순 송기창 신도순 양영렬 유선희

태영희(40) 김경자(62) 김기주(73) 김복원(60) 김영옥(55) 김영철(56) 김종택(64) 김주모(76) 김형진(81) 박 령(78) 박배훈(67) 박양수(59) 박윤서(51) 박진현(60) 박희숙(60) 백천호자(42) 송득자(68) 신영희(74) 오해송(77) 유경로(49) 유정자(59)

태영희 김경자 김기주 김복원 김영옥 김영철 김주모 김형진 박 령 박배훈 박양수 박윤서 박진현 박희숙 백천호자 송득자 신영희 오해송 유경로 유정자

法科大學

황병옥(56) 허만현(56) 홍성진 공경옥(66) 곽병선(70) 김귀웅(63) 김부월 김병연(76) 김동갑(57) 김원석(61) 김종택(87) 김주영 박태화(56) 박장순 박원선(64) 박노욱(65) 노영식(69) 배종우(53) 백현기(51) 송범호(85) 신돌균 안영희(61) 우경자(65) 유춘희 유근성 윤의순

한연홍(60) 하영순(60) 최창섭(65) 최정욱(50) 최병진(60) 조효진(56) 조영옥(52) 정희재(63) 정석구(78) 정광순(57) 장문식(74) 임상순(64) 이흥구(52) 이태웅(75) 이준동(66) 이종국(58) 이정덕(59) 이재돈(72) 이완일(64) 이연식(60) 이승운(77) 이상욱(56) 이상오(81) 이방렬(69) 이계윤(57)

한인섭(60) 한문희(57) 최홍진(53) 최종승(70) 최상해(59) 최병운(75) 조용수(58) 조명제(62) 정인상(79) 정만영(57) 전의숙(72) 임형진(55) 이희문(56) 이혜성(62) 이춘선(73) 이종순(56) 이정웅(68) 이정국(62) 이왕근(73) 이연호(51) 이신영(62) 이수찬(56) 이상운(77) 이배희(55) 이규원(47)

이종명(68) 이재현(48) 이은구(62) 이원범(70) 이완기 이상재(71) 이병호(53) 이병구(43) 이범국(60) 이래화(57) 이경우(49) 윤재운(75)

이종연(67) 이종만(46) 이정자(46) 이일규 이유택(83) 이용인(66) 이석우 이복연(55) 이병주 이병수(64) 이민승(36) 이봉옥(73) 이구범(73) 은결자(63)

이영호(69) 이수근(60) 이문원(70) 이동대(61) 유하균(61) 윤여탁(61) 유석기(61) 유문희(57) 원호춘(56) 여영훈(50) 심병부(63) 송진용(60) 송인덕(69) 손호목(61) 서도성(67) 백기영(60) 박창규(61) 민병인(70) 김환식(72) 김진건(69) 김종헌(59) 김동덕(59) 김정순(59) 김영빈(72) 김서봉(68)

허도행(69) 허 홍(61) 한만봉(85) 최홍근(62) 최천진(69) 최우렬(74) 최복렬(56) 최문기(74) 진철평(63) 조장희(70) 조용우(65) 조규재(54) 정조홍(65) 정인근(74) 정동철(66) 장철훈(63) 장순규(59) 입하석(63) 이한봉(58) 이태환(62) 이찬구(61) 이용성(52) 이종희(75) 이종달(62) 이정렬(54) 이윤우(70)

홍성환(66) 허남린(60) 한정준(58) 탁일성(61) 최하식(64) 최처락(58) 최정완(57) 최용호(54) 최민환(62) 최규성(63) 진유구(75) 조윤희(71) 조대형(60) 정종순(69) 정순용(58) 정수웅(65) 정건해(73) 장종의(64) 정광명(64) 임재표(62) 이한구(69) 이좌영(62) 이종달(63) 이재우(63)

정의동 정운정(57) 정상용(68) 정길두(67) 정교관 정 단(67) 전주영(64) 장기팔(62) 임형빈(60) 임종원(70) 이희준(53) 이해의(70) 이중희(51) 이종조주 이정권(63) 이재홍(51) 이인용 이용기 이용우(65) 이승운 이석호 이병건(45) 이동훈(59) 이기웅 이관우

정종기(65) 정육수(51) 정창수 정병호 정구현(69) 정광홍(62) 전종록(61) 장만화(61) 장건수(73) 임석훈(57) 임석현(49) 이현구(75) 이중관(61) 이정환(75) 이재환(66) 이재원(59) 이인구(61) 이용원(64) 이영유(65) 이성용(43) 이복유(66) 이대형(58) 이국희(62)

藥學大學

유정렬(50) 한문필(41) 이주완(50) 이병선(49) 이현준(50) 이현태(60) 이수임(79) 이상희(66) 신화범(58) 송진홍(66) 손선일(64) 백성기(63) 박종호(71) 박정희(55) 김종철(57) 김완희(72) 김성왕(70) 강대홍(55) 조원형(56) 조정일(70) 이원희(72) 이성훈(60) 이갑렬(57) 신현호(57) 송 철(56) 백연희(81) 백고흥(67) 박종길(75) 박영길(65) 김재곤(63) 김영환(71) 고화자(67) 한등렬(65) 권영환(58) 김주란 박명호(57) 민병덕(53) 박조탁(57) 배영환(67) 송인화(57) 엄기영(53)

백승빈(58) 배영자(69) 박관철 김홍대(59) 김광일(49) 강기훈(75) 최종순(55) 정진기(57) 이현태(60) 이수임(79) 이상희(66) 신화범(58) 송진홍(66) 손선일(64) 백성기(63) 박종호(71) 박정희(55) 김종철(57) 김완희(72) 김성왕(70) 강대홍(55) 이현준(50) 이병선(49) 한문필(41)

獸醫科大學

황상교(57) 황재철(65) 홍성유(51) 현의태(65) 허 석(65) 허 상용(64) 한지명(51) 최종원(59) 최정호(65) 최동건(74) 최구관(57) 지환영 주광준(60) 조치현 조성진(61) 조상호(63) 조동선 조정홍(49)

황창화 홍춘기 현임종(60) 허영정(62) 한석윤(58) 한국종(67) 최진택(65) 최종우(64) 최병로(59) 최남식(65) 채병윤(63) 지상진(57) 조흥원(71) 조원기(40) 조석조 조동일(64) 조건일(63)

정호채 전은진(64) 이수창(67) 윤화중(58) 오성문(60) 소경택(65) 서정환(54) 변훈달(55) 백오섭(62) 박학수 김인호(57) 김남홍(64) 구용회(55) 강성동(72) 최성호(61) 장천석(57) 이종화(57) 안 훈(57) 김태준(58) 김석래(86)

조기형(53) 정창국 전세규 이명우(55) 윤경진(85) 양기천(63) 석세조(54) 서동일 변영근(56) 배원환(60) 김정근(59) 김상규(70) 권순호(57) 구본수(57) 홍종수(59) 전동룡(56) 장인호(59) 엄기숙(76) 백충기(77) 김이섭(59)

音樂大學

홍순언(66) 홍민후(38) 현덕성(70) 허 상(62) 한영희(69) 편창범 최연화(55) 채동규(38) 주영현(48) 조인홍(48) 조동화(54) 조규형(49) 이주형(71) 이원표(56) 이영재(61) 이상은 이기연(62) 윤승노(56) 우동일 오병민(55) 신현학(61)

황의성(65) 홍준억(58) 홍기정(64) 허 용(47) 허 란(57) 한근종(49) 최치선(45) 최수영(73) 지정임(56) 조혜숙(58) 조인형(53) 조내규(62) 정근화 이일수(38) 이완우(61) 이승길 이대희(50) 이 윤(72) 유원근(68) 오종화(68)

조성진 조상호 조동선 조치현 조정홍 조주우 조택근 지성우 최규영 최달윤 최상태 최상만 최승만 최영기 최우석 최종화 최창섭 한영석 허태원 황병호 황병일 홍영선 한영배 태범식 최원백 최영문 최승만 최선근 최병주 최민호 최기혁 차상필 조해근 조태현 조육희 조용준 조대연 조 석 정지태 정원익 정봉락

조건일 조동일 조석조 조흥원 조원기 지상진 채병윤 최남식 최병로 최종우 최진택 한국종 한석윤 허영정 현임종 홍춘기 황창화

김이섭 백충기 엄기숙 장인호 전동룡 홍종수 구본수 권순호 김상규 김정근 배원환 변영근 서동일 석세조 양기천 윤경진 이명우 전세규 정창국

김영자 박종홍 서한범 양경숙 우화경 이경숙 이오규 이종국 이연자 이옥염 유화자 오미혜 심상용 박효선 박영자 권상욱

김영호 김종헌 김정빈 김서봉 김동덕 김정순 김영빈 김서봉 김종헌 김정훈 김영식 김시왕

김병식 김재철 김정복 김복주 김상연 문무상 노경진 박용욱 박명근 박태일 배기수 배지열 백천호 서준호 송화섭 신찬수 신재석 양재수 위계신 유만조 유방연 유명희 유관필 유병인 유세용 유길현 유용찬 유복현 유복록 유봉도 윤여식 윤종렬 윤호춘 이동혁 이영세 이유선

김진환 김주호 김종해 김정훈 김영식 김재철 김정복 김상연 노경진 박용욱 박명근 박태일 배기수 배지열 백천호 서준호 송화섭 신찬수 신재석 양재수 오창규 양경환 신휘창 신석휴 변민수 배태수 배정운 박해용 박찬열 박병호 박만록 노정욱 노경섭 김홍배 김정환 김영춘 강종기

이건식 윤중길 윤용찬 윤길현 유세용 유병인 유관필 오창규 양경환 신휘창 신석휴 변민수 배태수 배정운 박해용 박찬열 박병호 박만록 노정욱 노경섭 김홍배 김정환 김영춘 강종기

조동일 조석조 조흥원 조원기 지상진 채병윤 최남식 최병로 최종우 최진택 한국종 한석윤 허영정 현임종 홍춘기 황창화

조건일 조동일 조석조 조흥원 조원기 지상진 채병윤 최남식 최병로 최종우 최진택 한국종 한석윤 허영정 현임종 홍춘기 황창화

김이섭 백충기 엄기숙 장인호 전동룡 홍종수 구본수 권순호 김상규 김정근 배원환 변영근 서동일 석세조 양기천 윤경진 이명우 전세규 정창국

김영자 박종홍 서한범 양경숙 우화경 이경숙 이오규 이종국 이연자 이옥염 유화자 오미혜 심상용 박효선 박영자 권상욱

김영호 김종헌 김정빈 김서봉 김동덕 김정순 김영빈 김서봉 김종헌 김정훈 김영식 김시왕

김병식 김재철 김정복 김복주 김상연 문무상 노경진 박용욱 박명근 박태일 배기수 배지열 백천호 서준호 송화섭 신찬수 신재석 양재수 위계신 유만조 유방연 유명희 유관필 유병인 유세용 유길현 유용찬 유복현 유복록 유봉도 윤여식 윤종렬 윤호춘 이동혁 이영세 이유선

강영복 김병식 김재철 김정복 김복주 김상연 문무상

工大 法大 師大 醫科 地方지부서도 모임의 내 精神보내

騰場

◇醫科大學
▶이진우(의) ▶박홍근(의) ▶김수영(의) ▶전홍수(의) ▶이건(의) ▶전홍수(의) ▶이건(의) ▶김수영(의) ▶이건(의) ▶김수영(의) ▶이건(의) ▶김수영

會費를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校歌·同窓會歌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 商科大學

◇ 獸醫科大學

◇ 師範大學

◇ 美術大學

◇ 藥科大學

◇ 農科大學

◇ 文理科大學

◇ 自然大學

◇ 家政大學

◇ 經營大學

◇ 工科大學

◇ 社會大學

◇ 人文大學

一般會員

◇ 環境大學院

◇ 醫科大學

◇ 藥學大學

◇ 師範大學

◇ 經營大學院

◇ 保健大學院

◇ 司法大學院

◇ 新聞大學院

◇ 行政大學院

◇ 大學院

◇ 音樂大學

◇ 體育大學

職場支部

◇ 美國：24단체

◇ 한국주재원이사회：30단체

◇ 일본지부 및 지사：23단체

◇ 캐나다지부：9단체

◇ 파리지부：10단체

※ 藥大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되오니 다시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教室 〈1〉

—金恩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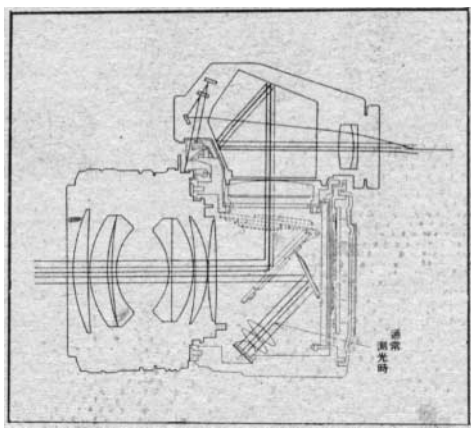
〈57년 師大卒·母校 교수〉

머리말

취미삼아 사진기를 매만지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20여년이 되었다. 그렇다고 사진학을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며, 더구나 어느 전시회에 출품했다거나 개인전을 가졌다거나 하는 경력도 없다. 단지 사진 잡지를 들여다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구경했다는게 고작 나의 寫歷의 전부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술답사를 가서 찍은 나의 사진이 학생들에게 조금은 인기가 있어 졸업 기념 여행에 동반을 요청받는다거나, 동료 교수님들을 찍은 인물 사진이 그분들의 저서나 회갑 기념 논문집 같은 데 크게 실릴 때는 내심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에 서울大 「同窓會報」에 固定 칼럼을 출 테니 寄稿해달라는 부탁도, 나에게서 사진을 받은 교수님들이 중간에서 이루어진것 같다. 동문들중에는, 더구나 필자와 같은 國語科 출신 동문들 중에는 寫眞學으로 전향해서 국제 무대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이미 大學 講壇에 선 분도 계시므로, 나 같은 白面書生이 이 난을 담당한다는 것은 焉敢生心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써 볼까 한다.



◆카메라 斷面圖

用途생각한후 機種 선택

說明書 잘보고 機械 조작해야

1. 寫眞機의 選擇

寫眞機의 역사도 꽤 오랜 만치, 그 종류도 다양하여 購入時에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焦點이 고정되어 있고, 조리개의 開閉, 샤터 스피드 조절 같은 것도 필요없는, 이른바 <명텅구리> 카메라를 위시해서 스튜디오에 설치된 大型 카메라, 혹은 프로들이 애용하는 중형 카메라 등 가지각색이나, 일반적으로 初心者에게는 35㎜ 1眼 리플렉스 카메라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때 유념할것은, 스테레오 音響機器 구입시와 마찬가지로 싸구려 普及品은 價格은 저렴하나 성능에 한계가 있어 곧 실증이나 품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購入에 앞서서는 사진 관계 전문지나 서적을 통해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넣어야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진기에 대한 안목 내지식견도 높아지고 다루는 요령, 촬영 솜씨까지도 은연중 익히고 향상될 것이다.

2. 說明書 精讀

機械 같은 물건에는 구입시 說明書가 따른다. 中古品을 살 때에도 가급적이면 설명서까지 물려받도록 해야 한다. 설명서가 없다면 그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說明書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精讀할 필요가 있다. 다루는 법을 몰라 기계를 망가뜨리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어느 會社製品이건 또는 機種이건 잘못 다루면 치명적 故障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삼 주의를 요한다. 언제나 淸潔해야 되겠으나 쓸데없이 렌즈를 닦아서 흠집을 내는 일, 장마철에 간수를 잘못해서 곰팡이가 나거나 녹이 슬게 만드는 일, 못창 속에 넣어 둔 탓으로 나프탈린 가스로 렌즈 등의 접착제를 녹게 만드는 일 등은 삼가야 할 것이다.

健康趣味

血液癌치료의 발전

骨髓이식 등으로 40～50% 治癒

金東集

〈58년 醫大卒·가톨릭醫大 교수〉

과거 10여년간에 걸쳐 의학 및 의료전반이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나 그중에서도 혈액종양의 치료분야가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 같다.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백혈병이 이젠 치유가 가능한 병으로 변했다. 이러한 비약적인 변천은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과 투여방법의 연구, 충분한 항암제를 투여할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보조요법, 골수이식요법과 BRM의 도입, 분자생물학 및 면역학의 임상치료분야 응용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인된 것이다. 여러가지 혈액종양질환중 급·만성백혈병을 중심으로한 현대의학의 치료분야발전의 일면을 소개 해 보고자 한다.

아직도 급성백혈병의 치료에는 화학(약물)요법이 중심이 되고있다.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항백혈병제의 개발과 더불어 여러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다제병용요법과 이들 약제의 투여방법의 연구와 출혈, 감염, 빈혈등 백혈병의 증세 및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보조요법의 반전으로 장기생존자가 증가하여 1960년대에는 발병후 3년이내에 거의 모든 환자가 사망하였으나 최근에와서 화학요법만으로 가장 예후가 나쁜 성인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도 5년이상 생존율이 10～20%에 달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골수이식요법이 시도되면서 한층 높은 치유율(40～50%)을 보이고 있어 여러가지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쁘고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던 이병이 잘 하면 이제는 치유가능한 병으로 되었다.

「급성백혈병을 치유시키기 위하여는 백혈병 환자의 몸에 생긴 백혈병세포를 전멸시켜 완전 관해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완전관해상태의 환자의 몸에도 아직 108～109개의 백혈병세포가 남아있어 언젠가는 다시재발이 되고 만다. 이러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한 화학요법을 다시 실시하거나 골수이식을 실시 하는것이 최근 보편화된 급성백혈병의 치료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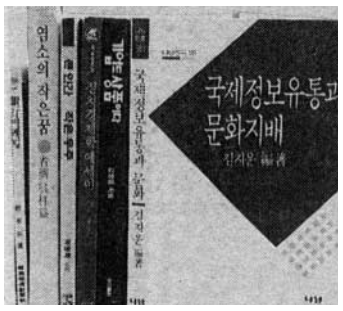
우선 완전관해상태로만들기 위하여는 백혈병세포의 종류에 따라 같이 사용하는 다제병용요법을 실시하여 최근 완전관해율을 많이 향상시켰다. 관해상태로 만든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강화요법및 유지요법 등에 대하여는 아직도치료내용, 기간,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이론이 있으나 관해상태의 환자몸에 남아있는 잔여 백혈병세포에 의한 재발을 지연시킬수 있다는 것은 임상에서 증명되었다. 이러한점으로 보아 백혈병 치료에있어서의 화학요법의 발전은 새로운 항백혈병제의 개발 보다는 여러가지 약제의 투여방법의 발전과 대량의항암제를 투여할수 있게 한 보조요법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최근 G-CSF, GM-CSF이라고 하는조혈증식인자(골수세포의 밀거름)가 개발되어 정상백혈구(호중구)가 감소되었을때 이들의 투여로 호중구를 증가시켜 감염증 예방 및 치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과거백혈병 치료에 있어서어려운 문제로 되어있던 출혈에 대한 대책은 그간 혈액을 성분(혈장,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 별로 구분하여 수혈하는 성분수혈이 가능하게 되어 혈소판감소로 인한 출혈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관해서는 그간 병태생리의 해석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치료에 있어서는 급성백혈병에 비해 지난 4반세기동안 큰 개선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골수이식의 도입과 인터페론의 등장으로 치유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만성임파구성백혈병은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문 병으로 아직도 많은 경험이 없다. 동종 골수이식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유를 가능케하는 치료방법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다. 만성기에서의 이식으로 50～80%의 장기생존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장기 생존율은 진단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진단후 1년이내는 80% 진단후 3년이상이면 20%정도로 떨어지며 이행기, 급성전환기에도 실시하나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많고 이행기에는 20～30%, 급성전환기에서는 10～20%의 장기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골수이식은 아무에게나 실시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조혈모세포의 이식으로 일종의 조직이식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조직적합성항원이일치되는 정상골수모세포공여자가 있어야 된다. 선진국에서는 조직적합성항원 은행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중에서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골수이식에는 경제적 부담이 많고 보험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의료보험제도의 맹점이다. 인터페론의 치료효과는 단독으로는 기대가 어렵고 다른 화학요법과 병용이 바람직하다.

新刊

▲ 국제정보유통과 문화지배
— 金芝雲編著 (55년 文理大卒·성균관大 교수)

이책은 구미 선진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우위가 초래한 현존 국제정보질서의 고질적인 병폐와 제3세계에 의한 무비판적인 구미의 기술·문화수용이 몰고온 문화종속을 파헤치는 한편 정보화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안토니 스미스의 글과 편저자



의 논문, 그리고 미국과 유럽사회의 문화지배·종속논쟁을 다룬 Bjork의 논문등으로 구성된 이책에서 「정보화사회」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나남刊·313쪽·6천원〉

▲ 염소의 작은꿈
— 吳柱益著 (57년 醫大卒·吳파부비뇨기과원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는 남을 사랑할줄도 알고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하는 심정으로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본 저자의 華甲기념 수필집. 저자가 30여년간 경험해온 일상경험에서 느껴왔던 단상들을 병의 유형에 따라 엮어 놓았다. 재기와 유머가 돋보이는 저자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독자들은 때론 웃음을, 때론 신선한 충격을 체험하게 된다.〈해냄출판사刊·323쪽·비매한정본〉

▲ 정치경제학에세이
— 金秀行著 (65년 商大卒·母校교수)

이책은 저자가 지난 10여년간 각대학의 신문과 학회지, 일간지와 잡지등에 기고 했던 우리 경제의 모순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방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경제학의 특성」「한국경제의 모순과 전개과정」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책을 통해 읽는이들은 세계경제질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성을 함께 관망할 수 있다.〈새날刊·317쪽·4천5백원〉

▲ 기업도 상품이다
— 葛政雄著 (72년 商大卒·대림산업기조실理事)

「M&A의 모든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책은 M&A, 즉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저자의 현실적 체험을 근간으로 저술됐다. 이책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기업거래활동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업체전문화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날 기업합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명진출판刊·384쪽·8천원〉

▲ 큰인간 작은우주
— 郭泳植著 (81년 自然大卒·수원大교수)

『자신의 크기와 도저히 비교가 되지않는 우주의 비밀을 속속들이 밝히려는, 인간이야말로 神도 말리지 못하는 위대한 고집장이인지 모른다』고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 적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에서 출발, 달과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를 거쳐 인간이 알아낸 큰 우주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는 이책은 특히 저자의 유학시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주문,구입한 슬라이드자료등 참고자료의 배열이 돋보인다.〈사민서각刊·229쪽·3천8백원〉

▲ 銀行마케팅
— 趙泰玄著 (83년 大學院卒 외환은행조사역)

이책은 오늘날 국내 은행들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환경변화에 국내 은행산업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마케팅관리의 내용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은행마케팅의 의의와 이의 발전과정을 기술하면서 은행의 상품전략등을 고찰하고 있다. 한편 국내와 외국은행의 구체적인 마케팅사례를 들면서 국내은행의 마케팅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책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은행경영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사刊·171쪽·2천5백원〉

公演

▲ 金石·金振淑피아노 두오 리사이틀
— 6월27일 예음홀

김석(60년 音大卒)동문은 모교를 거쳐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립콘서바토리움을 졸업했다. 현재 경희大교수로 재직중. 김진숙(73년 音大卒)동문 역시 경희大에 재직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의 네손을 위한 환상곡 K.608과 네손을 위한 소나타 K.123a가 연주된다.

▲ 姜玄珠플루트독주회
— 6월2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이태리 산타세실리아 콘서바토리를 거쳐 모교 音大를 졸업(83년)한 강현주 동문은 그간 서울시향·바로크합주단·마드리실내악단 등과의 협연으로 주목받는 실내악연주자로 꼽히

◇姜玄珠(플루트)

고 있다. 또한 아스펜뮤직페스티발등 구미각지의 연주활동으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간 듣기 힘들었던 도니체티의 소나타를 비롯, 고다드의 곡등이 선보인다. 피아노는 李惠全(83년 音大卒·명지大교수) 동문이 맡았다.

▲ 姜麗珍하프독주회
— 6월17일 예술의 전당

모교 音大를 거쳐 지난 5월 네덜란드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강려진(88년 音大卒)동문의 귀국독주회. 姜동문은 그간 줄리어드의 낸시·알렌등 하프의 명인들이 주최한 마스터 클래스등에서 기량을 쌓아온 한편 유럽일원에서 개최된 하프캠프와 리사이틀등을 통해 음악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연주회는 헨델에서 니노로타까지 7곡이 선보인다. 바이올린은 李在民(86년 音大卒·부천필하모닉부악장) 동문.

▲ 李承珍첼로독주회
— 6월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모교 졸업(80년)후 美클리브랜드音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서울시향의 부수석을 거쳐 현재 영남大에 재직하면서 금호현악4중주단 멤버로 활동중이다. 동아·중앙콩쿨 첼로부 심사위원이기도한 李동문은 실험적인 연주자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진규영의 「線」을 비롯 프랑쾨르의 소나타등 이 선보인다.

▲ 朴勝敏피아노독주회
— 6월5일 예술의 전당

86년 音大를 졸업한 박승민 동문의 귀국무대. 朴동문은 줄리어드를 거쳐 현재 메네스音大 프로페셔널과정을 이수중이다. 모교재학중 전학년 실기장학생으로 뽑혔고, 졸업당시에도 실기 수석을 차지할 만큼 학구적인 연주자로 지목받고 있다. 폴랑, 라흐마니노프등 7곡이 연주된다.

▲ 서울市響정기연주회
— 6월4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서울시향의 이번 연주회는 독일의 미클로스에르데이를 수석객원지휘자로 초빙해 개최된다. 특히 협연자로 나선 宋姬松(85년 音大卒) 동문이 연주할 「A·I Khachaturian 첼로협주곡」은

◇宋姬松(첼로)

국내 초연작품으로 직선적이고도 활기에찬 화려함 때문에 청중들의 흥을 자아낸다. 宋동문은 부군인 安東昊(84년音大卒) 동문과 Segel Trio를 조직, 유럽 일원에서 활발한 실내악활동을 해왔다.

▲ 김호정 첼로독주회
— 6월25일 예음홀

모교 音大 3학년에 재학중인 김호정은 한국일보·동아콩쿨에 1등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울소년소녀교향악단의 첼로 수석을 맡고 있다. 특히 90·91년에는 한국대표로서 세계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미주·구주등지의 순회연주회에 참가하기도. JM데뷔시리즈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바하·파가니니등이 연주된다.

展示

▲ 裵成恒展
(83년 美大卒·건국大교수)

배성환은 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온 신예작가군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기존의 한국화적 어법과 발상을 과감히 탈피, 현대회화로서의 새로운 한국화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기운생동이라는 중핵적 동향회화의 미의식을 산과 폭포 혹은 구름과 물등 추상적 형상성을 통해 표출해 내고 있는 그는 화면을 流轉하고 움직이는 동력의 장으로 풀이해 내고 있다.

논개·화선지에 먹채색·70×130 Cm

母校소식

停年退任교수 13명 名譽敎授 추대

지난 2월말 정년퇴임한 13명의 교수가 4월 15일자로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이번에 명예교수로 추대된 분은 薰德模(외교) 崔弘基(사회) 李商萬(지질) 沈貞燮(공업화학) 李榮培(기계설계) 李樂周(항공) 魏祥奎(항공) 吳鳳國(축산) 朴泰植(임학) 玄在善(농생물) 郭潤直(사법) 李長洛(수의) 金英海(치의)교수등이다.

「大學院중심대학」중점育成 건의

經濟社會발전 5개년 計劃에 반영토록

研究분위기 活性化·고급人力 확보위해

대학본부는 연구중심과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일부를 92년부터 실시되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는 지난 4월24일 교육부에 제출된 「대학원중심대학 중점육성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통해 밝혀졌는데, 건의안은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방안과 대규모 연구캠퍼스조성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도서관의 도서확충계획, 중앙교육연구전산원의 전산화는력확장, 국제학술교류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위해 총 2천3백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8백30억원은 대학발전기금과 수원캠퍼스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천5백3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획실장 鄭英一교수(경제학)는 이에 대해 『50년대에 제정된 「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의 연구중심의 대학원교육이 급속도로 중요시되는 시점에서는 그 양적팽창과 질적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학력 인플레의 부정적 측면을 없애고 고급인력의 외국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급인력의 자력생산체제가 절실히 우구되고 있는실정이다』라고 이번 건의안의 근본취지를 밝히며, 『교육부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며 교육부에서도 본교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육성을 공감하고 이번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萬千7百명에게 支給

1학기 奬學金…수혜율 42%

91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이 대학·대학원 총 2만7천5백77명중 약 42%인 1만1천7백6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장학금, 법정면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교내장학금은 약 34%인 9천5백21명에게,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등 교외장학금은 약 8%인 2천1백85명에게 지급됐다.

大學綜合評價 대비 學事管理 분석착수

母校는 오는 9월경에 실시될 예정인 대학종합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를 준비중이다.

대학본부는 이를 위해 교육관련분야·학생관련분야 등 평가분야를 세분하고 각 분야마다 한두명의 자체평가위원을 선정, 張相浩교수(교육학)·趙秀憲교수(의학) 등 9명의 교수가 이에 위촉됐다.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의 학사관리, 재정, 경영상태등을 분석해 대학이 가진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에 의거, 5년을 주기로 해 시행된다.

다음은 자체평가를 위해 세분된 평가분야와 평가연구위원.

▲이념·목적·목표—金璟東교수(사회학) ▲교육과정분야—張相浩교수(교육학) ▲학생관련분야—趙秀憲교수(의학) ▲교수인사분야—愼侑根교수(경영학) ▲교수연구분야—徐正憲교수(화학) ▲교육시설—金昌孝교수(원자핵공학) ▲행, 재정분야—金東建교수(행정학) ▲종합평가—鄭英一교수(경제학), 金信福교수(행정학)

「發展基金」조성에 同參을…

朝興銀行 재직동문 2천53만원 出捐

조흥은행 이종연 行長(56년 상대경제학과 졸업)은 지난 5월1일 조완규 총장을 방문, 조흥은행 재직동문 1백13명 전원이 모은 모교 발전기금 2천53만원을 전달하였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상임이사 조동성 경영대교수)은 각 직장내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직장별로 기금조성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조흥은행은 추진위원 이종연 행장이 중심이 되어 전체 동문이 흔쾌히 참여함으로써 이번에 첫 결실을 이루었다.

직장별 기금조성은 출연금의 다과를 떠나 많은 동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번 조흥은행 전체 동문의 참여는 이러한 취지구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李長洛교수 퇴임行事費 절약 1백만원 寄託

지난 4월3일 교수회관에서 있었던 수의과대학 이장락 교수 정년퇴임기념연을 마련한 김범래 동문(56년 수의대졸업·수의대 동창회장·농수산부 동물검역소장)은 기념연 경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1백만원을 4월20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다.

國際 學問교류 활발

趙完圭교수 佛·캐나다등 3개大와 협정체결

趙完圭교수 총장은 5월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학술정보및 자료교환, 교수진 상호초청, 학생교류, 공동연구등을 내용으로하는 학술교류 협정을 프랑스 국립사회과학대학원과 체결했다.

趙총장은 또 6월3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7일에는 일본 경도대학과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90년도 모교財政 8백64억원

지난해 모교 재정은 89년보다 약 14% 증가된 총 8백64억천6백28만7천원이었으며, 이중 기성회계는 2백51억9천1백55만6천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발간된 90년판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의해 밝혀졌다.

在蘇교포 초청 民族教育 실시

재소(在蘇) 한인 민족교육담당자 30명이 모교부설 재외국민교육원 초청으로 5월27일 오전 방한, 오는 8일까지 2주일동안 호암생활관에서 합숙교육에 들어갔다.

재외국민교육원은 그동안 미국 일본등지의 교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왔으나 재소교포를 상대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원은 우리말과 글 역사 문화등 민족교과지도와 고적답사 산업시찰 등 현장학습, 민박(6월 1, 2일)등을 통해 한글학습 지도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禹範植명예교수 別世

모교 명예교수인 禹範植박사가 지난 4월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故 禹範植박사는 36년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과를 졸업하고 해방이후 줄곧 모교 공과대학에 봉직해 왔으며 지난 80년 정년퇴임을 했다. 또 禹박사는 55년부터 약 1년간 미국 메사추세츠州 로우엘공과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한 바 있으며 섬유공학계에서 제직기술을 체계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